

# 안전이 없으면 기술과 생산도 없다

## 대경폴리텍(주)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shu002@safety.or.kr)



송 경 영 대표이사

### 안전의 최대적은 '무지'와 '방심'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지'와 '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일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위험을 방치하면 사고는 기필코 나기 마련입니다. 이 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근로자들이 위험을 예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방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 전 위험예지 훈련, 정리정돈, 장해진 규정·규칙의 준수 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그 가치를 돈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또 평소에는 귀중함을 못 느끼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는 법입니다. 여기서 그 귀중한 것은 바로 '안전'을 말합니다. 안전은 행복의 첫 번째 요소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의 불안전 상태는 필히 지적하여 자신과 동료, 사업장 모두를 무재해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경폴리텍(주)은 합성수지(복합수지)를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 11월 삼성토탈(주)로부터 분리, 설립됐다.

5년여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의 기술력과 생산성은 이미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여기에는 이곳의 꼼꼼한 안전관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곳은 사업장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에 기반 한 빈틈없는 시설관리가 필수라고 본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생산성도 극대화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이곳은 '안전·안정가동 실현'을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합성수지 제조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대경폴리텍(주)을 찾아가 보았다.

### 위험공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이곳의 공정은 원료·부재료입고 → 계량·혼합 → 압출 → 건조 → 포장 → 제품출하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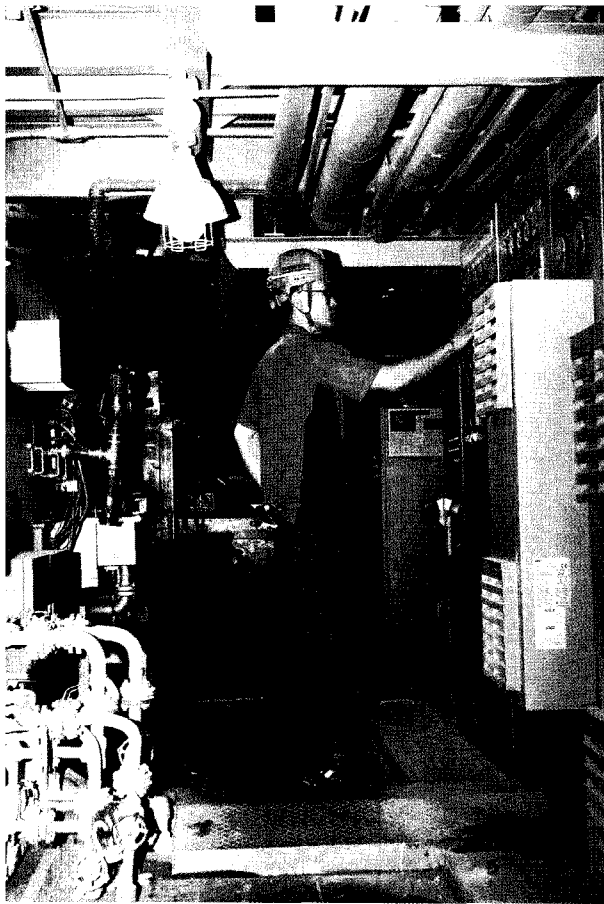
원료·부재료 입고, 출하 등의 경우 주 작업이 제품을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 지게차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은 편이다. 또 이들 작업 외 혼합공정 등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전기안전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상 따라 다닌다.

이곳은 이런 위험요소에 대응키 위해 지게차 사각지역에는 볼록거울을 모두 설치해 놓았으며, 현장 내에는 지게차 동선을 표시하여 근로자들의 해당 구간 내 이동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또 이곳은 전기안전장치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작업 중에는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작업은 2인1조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빈틈없는 시설관리

위험공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외에도 이곳은 다양한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테마별 영상교육,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등 다채로운 안전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자랑하는 안전활동은 바로 '설비관리'다. 이곳을 TBM(Time Base Management)과 CBM(Condition Base Management)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모든 설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빈틈없는 관리 덕에 이곳은 십수년 이상 된 설비들이 잔고장도 별로 없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가동되고 있다.

실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설비관리가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건강관리에도 만전 기해

이곳은 직원들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금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인근의 천안단체병원 등과 협력하여 유소견자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이곳은 공정 특성상 작업장 내 분진의 발생이 많은 것을 감안, 정부의 보조를 신청하여 백담실에

분진 집진설비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이곳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합대회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족구동호회 등 사내 동호회 활동도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할 것

현재 이곳 사업장은 무재해 4배수를 넘어 5배수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같은 무재해 비결은 앞서 살펴보았듯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적인 안전교육, 위험장비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이곳은 이 탄탄한 기본 바탕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빈틈없는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해 내겠다는 이곳의 계획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